

# ‘예정대로’ 해커 vs ‘순리대로’ 소사



플레이오프 첫 경기 선발로 NC 다이노스는 예상대로 에릭 해커(33)를, LG 트윈스는 순리대로 헨리 소사(31)를 내세운다. 정규시즌 2위 NC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준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온 LG는 20일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해커와 소사를 각각 예고했다.

김경문 NC 감독은 “해커가 한국에서 포스트 시즌을 포함해 경험이 많다”며 “팀 사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해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상문 LG 감독은 소사를 낙점한 이유로 “어차피 NC와 시리즈가 1승을 거두는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3승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소개했다.

5전 3승제의 플레이오프 1차전은 21일 오후 6시 30분 NC의 홈인 창원 마산구장에서 펼쳐진다.

해커와 소사, 두 투수 모두 한국프로야구에서 전배가 굵다. 해커는 2013년, 소사는 2012년 중반에 KBO리그에 데뷔했다.

오늘 NC-LG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 격돌

해커, LG전 등 PS 평균자책점 7.11 ‘부진’

소사, 가을야구 2승1패…평균자책점 3.86



NC 해커



LG 소사

두 팀은 KBO리그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험 많은 두 외국인 투수에게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 81%가 달린 1차전 선발의 중책을 맡겼다.

한국시리즈 티켓이 걸린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 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건 26번 중 21번으로, 확률로 따지면 81%다.

두 투수 모두 1차전 선발로 나서기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야구팬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선발 매치업이다.

LG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데이비드 허프와 해커의 최고 에이스 대결을 기대한 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양상문 LG 감독은 허프에게 나흘 휴식만 주고 플레이오프 1차전에 투입할 수도 있었으나 평소 스타일대로 순리를 따랐다.

바뀌 말해 LG가 허프 카드를 아닌 상황에서 1차전을 따낼 경우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만큼 해커의 어깨가 무겁다. 해커는 지난해 다승왕(15승)이자 올 시즌에도 부상으로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13승 3패에 평균자책점 3.45를 거둔 부동의 에이스다.

해커는 올 시즌 LG를 상대로 3경기에서 16%이닝 10실점하며 2승에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맞대결이었던 7월 31일 경기에서 3이닝 7실점으로 무너진 것이 걸린다.

가을야구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해커는 3차례 포스트시즌 등판서 모두 패전투수가 됐다. 평균자책점도 7.11로 저조했다. 2년 전, LG와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집중타를 허용하고 3%이닝 만에 강판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남 창원 마산종합운동장 올림픽기념공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LG 양상문 감독(왼쪽)이 NC 김태근 손을 잡으며 격려하는 모습과 모자를 벗으며 가볍게 인사한 뒤 먼저 빠져나가는 NC 김경문 감독이 묘한 신경전을 보인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는 소사는 올해 정규시즌 33경기에서 10승 9패 평균자책점 5.16을 기록했다. NC를 상대로는 5경기에서 2승 2패 평균자책점 5.10을 남겼다.

성적 자체는 평범하지만 넥센과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두 차례 1사 만루 위기

등 고비를 넘기며 6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티며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정규시즌 최고의 투수인 해커가 가을 무대에서 고전한 것과는 달리 소사는 정규시즌보다 가을 성적이 더 좋다.

소사는 올해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포

함해 포스트 시즌에서 통산 5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했다.

여기에서 소사는 NC의 4번 타자 에릭 테임즈가 유준원 전 징계 탓에 1차전에서 뛸 수 없어 한결 편안하게 타자들을 상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와후 추장 저주’ 풀까

클리블랜드, 토론토에 4승1패

68년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도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68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꿈꾼다.

클리블랜드는 20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5차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방문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7전 4승제의 ALCS에서 1~3차전을 내리 승리하고, 4차전 패배 후 5차전에서 승리한 클리블랜드는 4승 1패로 월드시리즈에 선전했다.

클리블랜드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건 1997년 19년 만이다. 월드시리즈 우승은 훨씬 더 오래됐다. 클리블랜드는 1948년 팀의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 67년 동안 정상에 서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1951년 팀의 마스코트인 와후 추장의 색깔을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표정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뒤 월드시리즈 우승에 실패해 ‘와후 추장의 저주’라는 꼬리표도 달았다.

올해 클리블랜드는 맹렬한 기세로 저주를 풀어나가고 있다.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1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클리블랜드는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에서 3경기 만에 보스턴 레드삭스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ALCS도 5경기 만에 끝냈다.

5차전에서 클리블랜드는 1회초 2사 후 프란시스코 린도어의 좌전 안타로 기회를 잡고, 마이크 나폴리의 좌익수 쪽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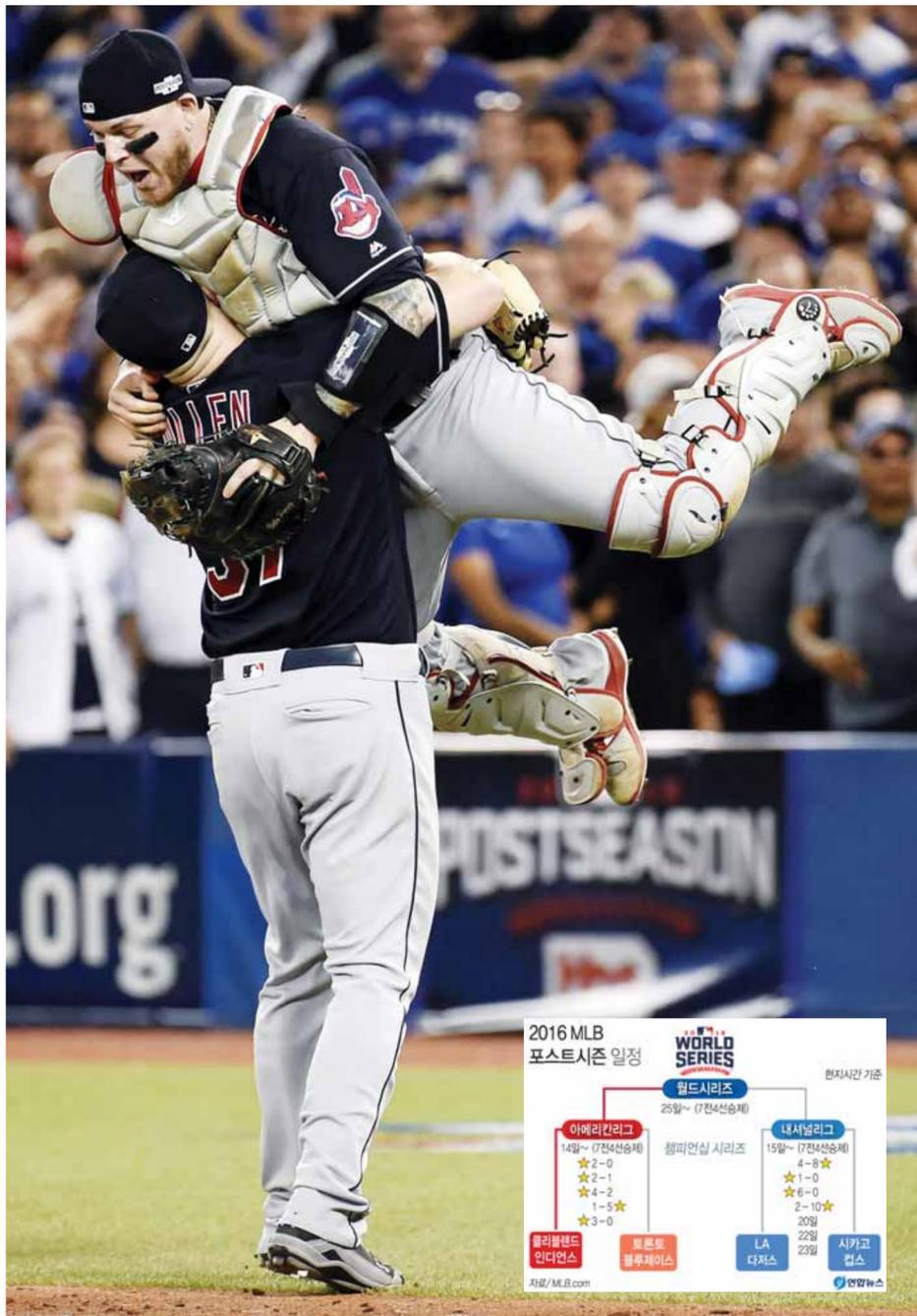
3회에는 카를로스 산타나가 좌월 솔로포, 4회에는 코코 크리스프가 우월 솔로 홈런을 쳐 추가점도 냈다.

테리 프랑코나 클리블랜드 감독은 적극적인 투수 교체로 3점을 지켰다.

좌완 선발 라인인 메릿이 5회말 1사 후 안타를 맞아 지체없이 첫 번째 투수 교체를 단행했다. 메릿은 4%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남은 4%이닝은 막강 볼펜이 나눠 막았다.

브라이언 소(1이닝 2피안타 무실점), 앤드루 밀러(2%이닝 1피안타 무실점), 코디 앨런(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은 차례대로 등판해 토론토 타선을 제압했다.

클리블랜드는 NLCS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의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연합뉴스



클리블랜드 구원투수 코디 앨런(왼쪽)과 포수 로베르토 페레즈가 20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5차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방문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KLPGA 스토브리그 달아오른다

박인비·박성현 등 스타들 계약 만료…대형계약 관심

시즌 종료를 앞두고 여자 프로 골프 후원 계약 시장에 큰 장이 선다.

올 연말에 후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 가운데 유난히 특급 스타가 많아져서다.

박인비(28·KB금융), 박성현(23·넵스), 전인지(22·하이트진로), 고진영(21·넵스), 안신애(26·해운대비치골프 앤리조트), 유소연(26), 허미정(27·이상 하나금융), 장하나(24·비씨카드) 등이 메인 스폰서 계약이 올해 끝난다.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은 일단 기존 계약 기입과 우선 협상 기간을 거친다. 양쪽 조건이 맞으면 재계약을 하지만 틀어지면 선수는 다른 기업을 모색하게 된다.

우선 협상 결과에 따라 특급 스타가 줄줄이 후원 계약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세리(38) 이후 처음 연간 20억 원이 넘는 초대형 후원 계약이 성사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선수는 박성현이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석권한 박성현은 넵스와 3년 계약이 만료된다. 무명 시절에 맺은 계약이라 지금 박성현의 위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넵스 측은 “조건만 맞다면 재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약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워낙 박성현의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9년 신지애(28)가 미래셋과 계약할 때 받은 연간 10억 원이나 2014년

롯데그룹과 계약한 김효주(21·롯데)의 연봉 13억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거론된다.

넵스와 재계약이 불발되면 박성현이 어떤 기업의 후원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스타 플레이어에 앞세운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려는 기업이라면 박성현은 매력적이다. 박성현이 내년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로 무대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해의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선호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국내 투어 선수만 후원하겠다는 기업도 있다.

전인지 역시 시장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전인지는 하이트진로와 재계약 한번을 포함해 5년 동안 후원을 받았다.

2015년 초 재계약할 때도 국내 선수 가운데 최고 대우를 받았지만, 월드 스타로 발돋움했기에 금액은 더 높해질 게 분명하다.

하이트진로 측은 “한번 인연을 맺은 선수와는 가능한 오래도록 같이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신지애나 김효주가 받았던 대우 정도는 해줄 수 있다”며 전인지를 붙잡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전인지를 영입하려는 다른 기업이 더 많은 금액에 더 좋은 조건을 부른다면 전인지가 쓰는 모자의 로고가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다.

선수 후원 계약 협상은 11월이 되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호랑이 가족 한마당’ 입장권 오늘 판매

‘팬 장기자랑’ 이메일 접수

KIA 타이거즈가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선수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팬들과 함께하는 ‘2016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연다.

오후 1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016시즌 동안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팬 참여형 이벤트다. 이날 KIA 선수단 전원은 팬들과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산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계획이다.

행사는 볼펜 및 덕아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라운드 이벤트를 시작으로 ▲팬 사인회 ▲선수단 사진전 ▲시즌 영상 상영 ▲신인선수 소개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호랑이 가족 한마당의 ‘백미’인 장기자랑은 사전접수를 통해 선정된 팬들의 무대로 꾸며진다. 선수단 역시 특별한 무대를 준비,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계획이다. 장기자랑에 참가하고 싶은 팬은 이메일(lovekiatigers@hanmail.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타이거즈 에코백’과 사인볼이 선물로 주어진다.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 입장 티켓 신청은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하면 된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1000명이며, 접수는 21일 오후 12시에 시작된다. 우천시에는 팬 사인회로 대체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